

# 전국민의 과학화 운동 ‘사이언스 코리아’

美- ‘프로젝트 2061’, 中- ‘프로젝트 2049’ 등과 유사

글\_ 박방주 중앙일보 과학전문기자 bpark@joongang.co.kr

**올** 초 대통령 업무보고 후 청사로 돌아온 오 명 과학기술부 장관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오 장관이 보고한 과학기술진흥 프로젝트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것이다. 예정보다 훨씬 긴 시간을 대통령과 과학기술부 관계자들이 토론을 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었다.

그 때 오 장관이 보고한 내용 중 핵심 사업 하나가 과학문화 확산이었다. 불모지나 다름없는 한국의 과학문화를 획기적으로 진작시켜 보겠다는 의지를 다졌던 것이다. 그 과학문화 확산 운동의 밑그림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 민간 주도, 5개분야 20개 핵심사업 전개

지난 4월 21일 과학의 날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 선포식에 이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다. 사이언스 코리아 선포식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고 건 국무총리, 과학기술부 장관, 사이언스 코리아 공동의장 세명, 학생 대표 2명 등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축제분위기를 만들었다.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은 과학문화 확산 운동을 모두 모아 놓은 결정체이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해 대한민국 곳곳에 과학문화의 숨결이 골고루 스며들게 하자는 것이 운동의 핵심이다. 앞으로 5대 분야별 20개 핵심사업을 중점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은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 과학기술

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원천으로 등장함에 따라,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통한 제2의 과학기술입국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 과학마인드 제고를 위한 범사회적 과학문화운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또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고, 청소년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탐구의욕을 진작하며, 과학기술인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해외의 ‘전국민 과학화 운동’ 사례를 살펴보면, 헬리헤성이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2061년까지 전 미국인의 과학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범부처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프로젝트 2061’을 비롯하여, ‘과교흥국(科教興國)’의 기치 아래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프로젝트 2049’, ‘지식은 새로운 세기의 핵심’이라는 주제 아래 추진하고 있는 독일의 ‘과학과 사회의 대화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의 추진체계는 공동의장, 공동대표단, 고문단 및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운동을 대표할 공동의장으로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정운찬 서울대학교 총장, 윤송이 SK 텔레콤 상무 등 3인을 추대했다. 여기에 사회각계의 신망이 높고 존경을 받는 인사들로 공동대표단(20여 명)을 구성하며, 실질적인 지원기능을 담당할 사무국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 설치하여 운영중이다.

선포식 이후 기업, 대학, 시민단체 등 민간주도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이언스 코리아’ 세부사업은 ‘과학이벤트’, ‘과학흥미



고건 국무총리, 오명 과기부장관, 사이언스코리아 공동대표 등이 선포식 단주를 누르고 있다.

유발 프로그램', '국민참여프로그램', '지역주민 체험 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등 5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사이언스 글로벌 과학 선발대', '전국민이 동시에 참여하는 과학실험(예: 인공지진, 소리실험)', '과학기술 창작문예', '재미있고 쉬운 과학교과서의 개발·보급', '청년 과학기술 자원봉사대', '기업주도의 청소년 과학캠프', '우수과학자 노벨상 후원회 결성' 등이 있다.

### 수만명 동시 참여 과학 이벤트 열려

현재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주요 사업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사이언스 코리아 글로벌 과학 선발대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3인1조로 팀을 구성한 뒤 주제를 정해 해외 선진과학 현장을 탐방함으

로써 세계 속의 한국과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민간기업이 역시 주도하며 참가팀에는 해외 체류 비용을 모두 지원하게 된다. 이를테면 원자력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문제를 주제로 해외 탐방을 한다면 그 팀은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사회 이슈에 대한 해결 방법과 올바른 시각을 갖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 과학영화 페스티벌

과학문화 확산 수단으로 영화를 활용하자는 전략이다. 영화만큼 다양한 과학이 실감나게 표현되는 매체가 드물고, 그 효과 또한 엄청나기 때문이다. 영화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과학영화 시나리오를 발굴하고 영화제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년 전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이미 공상과학

시나리오 공모전을 열어 그 가능성을 시험한 바도 있다. 세계적으로는 벨기에 ‘브뤼셀 국제 판타지’, ‘스릴러’, ‘SF영화제’ 등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영화를 이용한 과학문화 확산은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TV채널 설치**

전과 매체 시대의 총아인 TV를 최대한 이용하려는 것이다. 과학의 대중화에 TV의 위력은 절대적이다. 인쇄 매체보다 더 감각적으로 대중의 뇌를 파고 들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이미 과학 TV채널은 기초 사업 자금을 확보한 상태이다. 이 채널이 가동되면 과학을 소재로 한 드라마, 쇼, 다큐멘터리 등을 내보내게 된다. 외국의 경우 과학TV채널은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영국의 과학교양 채널인 ‘채널4’, 미국의 PBS, 중국 CCTV 채널 10, 일본의 ‘사이언스 채널’ 등 대부분의 나라들은 과학채널을 가지고 있다. 물론 과학채널을 상업적으로 해서 성공한 나라는 없다. 대부분 나라에서 지원해 운영하고 있다. 그만큼 공공성이 크고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현재 디스커버리,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 외국의 콘텐츠를 그대로 들여와 방영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등장인물과 영상물이 모두 외국 것이다.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으로 과학TV채널이 생기면 국산 콘텐츠를 만드는 산업도

활기를 띠 전망이다. 또 우리 나라 과학자들의 사기를 앙양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전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과학실험**

‘인공지능이나 소리실험’ 등이 그것이다. 인공지능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여서 1분 동안 퓌퓌기를 할 경우 지진계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실험하는 것이다. 소리 실험의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모여 30초 동안 소리를 질러 발생하는 현상을 파악해보는 것이다. 이는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모여 과학이벤트를 즐길 수 있게 한다. 이런 실험은 잠실운동장이나 상암축구경기장에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다. 물론 이럴 때는 축구장 등 관람석이 아닌 땅으로 모두 내려와 해야 할 것이다. 축구장이 무너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 창작문에**

노벨상이 지금처럼 인지도가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은 노벨 문학상을 함께 수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문학이 대중을 파고 드는 지수가 단순 과학에 비해 훨씬 크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 착안해 창작 문예를 활용하려는 것이다. 과학소설, 만화, 희곡 등 여러 장르를 과학을 소재로 문학작품을 만든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다. 좋은 작품은 영화를 만드는데도 활용한다. 공



제37회 과학의 날 기념식장에서 사이언스 코리아 선포식이 열리고 있다.

모전 수상작들은 대대적으로 보급 운동을 편다.

### 우리 나라 과학문화수준 향상 기대

#### 재미 있고 쉬운 과학교과서 보급

보통 학생들은 과학은 재미 없는 과목으로 생각한다. 이를 부채질하는 것이 교과서이다. 너무 재미없고 딱딱하게 원리만 설명하는 것이 태반이다. 이는 우리 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과학 선진국이라는 일본도 대동소이하다.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의 일환으로 과학 교과서를 확 뜯어 고쳐 보겠다는 것이다. 보기만 해도 재미 있는 과학 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이 앓다 튀 읽어보고 싶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각분야별로 '쉬운 과학 교과서 개발 위원회 (가칭)'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유기적인 협력이 없이는 성공하기 힘든 사업이다.

#### 과학과 예술의 만남

과학기술과 대중 예술의 접목을 시도하는 사업이다. 음악과 미술, 연극, 과학문화 카페 등을 과학과 연결시켜 대중의 시각을 붙잡으려는 구상이다. 그 일환으로 연극과 미술, 음악 등 공연예술을 중심으로 'Sci-Art' 종합축제를 연다. 국내외 유명 작품을 초대하는 것은 물론 사전 공모를 통해 유명 작가를 공식 초청하는 방법도 동원할 계획이다. 또 'Sci-Art 포럼'을 각계 인사로 구성한다.

#### 기업 주도의 청소년 과학캠프

초등학생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학캠프를 여는 것이다. 현재 기업들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예산의 일부를 과학캠프쪽으로 돌리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기업들은 미래의 고객인 청소년들에게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가 있고, 국가적으로는 청소년들의 과학마인드를 갖게 하는 효과도 있다. 캠프 개최는 여름과 겨울 방학을 주로 이용하며, 연구소 탐방, 과학실험, 환경 답사 등이다.

현재 해외 유수의 기업들은 과학캠프를 운영중이다. 3M의 사이언스 캠프, 듀폰의 어린이 과학캠프, 소니코리아의 청소년 환경보호캠프, 인텔의 학생과학캠프 등 많다. 우리 나라의 기업들도 이제 이런 행사를 열 만큼 충분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 1기정 1과학실험상자 갖기 운동

학생들은 과학실험을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를 북돋운다. 그러나 대부분 학교 실험실에서 어쩌다 직접 해보는 실험에 만족해야 한다. 상당수는 실험 조장이 하는 실험을 지켜볼 뿐이다. 이런 환경에서 과학에 대한 흥미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 운동은 학교에서건 집에서건 실험을 할 수 있게 특별히 고안된 과학실험장비를 갖추게 하자는 것이다. 물론 안전하고, 흥미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이언스 앰배서더

과학자들이 모교를 방문해 예비 과학자들에게 과학자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사업이다. 총 1천 명의 앰배서더를 확보해 모교 방문을 하도록 한다. 이는 과학자들과 청소년이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과학에 대한 꿈을 키우게 하자는 생각이다.

#### 우수과학자 노벨상 후원회

노벨상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의 영광이기도 하다. 국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대내외에 기술력을 과시하는 계기가 된다. 이런 점에서 노벨상 수상 가능성이 있는 우수한 과학자를 발굴해 후원하자는 취지이다. 그 첫과학자로 서울대 수의과대 황우석 교수가 선정됐으며, 후원회도 발족됐다. 황 교수의 경우 올해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도 정치인처럼 과학자를 후원하는 모임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사업들 외에도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사이언스 오블리주 ▷청년 과학기술 봉사대 ▷과학커뮤니케이션 주말 합숙 훈련 ▷우리가 만드는 테마 과학관 ▷생활 과학교실 설치 ▷지역 과학축전 ▷엑스포 과학공원을 과학 놀이 공원화 ▷유스 사이언스 클럽 결성 ▷1천만 과학사랑 커뮤니티 구축 ▷대학과 출연연의 오픈 랩 행사 ▷우리 과학문화 유산 탐방 등이 있다.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 나라 과학문화의 수준도 한 계단 뛰어 오를 것이다. 또 국가의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도 국민적 호응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ST**